

여순사건 업무담당자 워크숍, 사건 발발지인 '여수'에서 열려

실무위원회·전남 22개 시군 업무담당자 등 80여명 참석 피해 신고접수 개선 방안 등 현장 어려움 중심 열띤 논의

여수시는 15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가 주관한 업무담당자 워크숍이 사건 발발지인 '여수'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와 전라남도 22개 시군 업무담당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하나된 마음'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 직무 교육, 분임토의 및 과제 발표, 자유토론, 평가 및 시상,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해자 신고접수 개선 방안, 국민 인식

부족 극복을 위한 홍보 방안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하반기에는 전라남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범국민적 운동으로 신고·접수율을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여순사건위원회 위원과 지역 유족회장, 정기명 여수시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순사건은 단순히 여수나 순천, 전남 동부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받

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다"며 "사건 발발지인 여수가 중심이 돼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과 화합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워크숍을 주최한 여순사건위원회 장현범 단장은 "희생자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고령이 되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의 피해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개별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원할 경우 전국 시도나 시군구에, 희생자 및 유족으로의 결정을 원할 경우 전라남도나 시군, 가까운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조곡동 제1회 비어 페스티벌 성료 조곡생활체육공원 일대서 체험 프로그램·다양한 행사 진행



순천시 조곡동 주민자치회(회장 이노옥)는 최근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제1회 조곡동 비어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곡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된 페스티벌은 워터슬라이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와 같은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동호회의 통기타공연, 조곡동 풍물단의 판국공연,

칠갑산을 부른 가수 주병선의 엔딩무대 등 전문 공연무대로 행사장을 가득 채워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곡동 상가변영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생맥주 및 음식 부스를 운영하여 조곡동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근심은 비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열기는 여름의 무더위마저 밀어내고 행사장 곳곳을 가득 채웠다.

이노옥 조곡동 주민자치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찾아주신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을 경험 삼아 내달 8월 27일 예정된 철도마을축제는 오늘보다 더 나은 콘텐츠 등을 구상하여 조곡동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선화 조곡동장은 "3년만에 마련된 행사여서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행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힘썼다."라며 "앞으로도 조곡동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지역 단체들과 함께 민관협력력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미술관에서 물명~불명~"

전남도립미술관 기획전시 '애도 : 상실의 끝에서'가 보내는 위로

광양시가 삼북터위에 시월한 미술관에서 물명과 불명을 즐기는 이색 여름여행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옛 광양역 터에 건립된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기획전시 '애도 : 상실의 끝에서'가 전라리에 열리고 있다.

'애도 : 상실의 끝에서'전은 팬데믹, 기후 위기, 전쟁 등으로 현대인의 삶을 관통하는 상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애도의 과정을 추적한다.

관람객은 김수자의 '바늘여인',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루디 삼촌', 빌 비올라의 '트리스탄의 승천' 등 영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상실과 애도의 과정을 목도하게 된다.

특히, 비디오아트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빌 비올라의 '트리스탄의 승천'과 '불의 여인'은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차용한 작품으로, 사랑하는 연인의 상실과 부활에 담긴 감정을 추상

적으로 표현했다.

'트리스탄의 승천'은 죽음 이후 영혼이 깨어나 우주공간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으로, 석판 위에 놓여 있던 남성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로 생명력을 부여받아 떠오르더니 화면 위쪽으로 사라진다.

'불의 여인'은 죽어가는 남자가 마음의 눈으로 본 이미지를 작품화한 것으로, 불의 장벽 앞에서 있던 검은 실루엣의 여성이 반사된 자신의 이미지 속으로 점점 빠져버리면서 관람객을 충격에 빠뜨린다.

두 작품은 각각 10분 16초, 11분 12초 동안 수직으로 길게 설치된 스크린에 번갈아 투영되면서 관람객들을 물명, 불명의 망중환으로 이끌며 좋은 찬사를 얻고 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보성군 "벼 이삭거름 적기에 적량 시용해 주세요"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벼 중만생종 출수 전 이삭거름 적기 적량 시용을 농가에 당부했다.

보성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새정무 품종의 출수기는 8월 15일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삭거름을 출

수 20~25일 전에 주는 것이 적당하다.

1모작의 경우 이삭거름 시용 적기는 7월 18일에서 7월 22일까지이며, 2모작의 경우 8월 1일에서 8월 5일까지다.

사용량은 NK 복합비료(N-K=18-16) 11kg이며, 염색이 진하고 도복이 우려되는 포장은

NK 복합비료를 생략하고 염화칼리만 3kg/10a 정도 시용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간단 관수를 통해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며, 출수 전에 이삭거름을 적기 적량 시용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고흥 명품복숭아 품평회 및 체험행사 열려

고흥군은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과역면 참살이 조가비촌 광장에서 '고흥 명품복숭아 품평회 및 체험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품평 행사는 고흥 복숭아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평생고객 유치 목적으로 고흥명품복숭아 영농조합법인(대표 김도기)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상큼하고 달달한 여름 과일인 여왕으로 불리는 미홍, 미황 등 '조곡 조생종 복숭아'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고흥의 소득유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표작목 중 하나인 '고흥 명품 복숭아'는 고흥 지역의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노지 재배에도 전국 복숭아 주요 산지보다 5일~10일 빠른 조기 수확과 출하를 통해 틈새 소비시장 선점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최신식 재배 기술인 Y자형 '팔메트식' 재배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우산식'재배 보다 햇빛을 골고루 받아 품질과 맛이 뛰어나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